

## 표현(表現)과 기술(技術)

### 1

주지주의 문학과와의 가장 유력한 대변자의 한 사람인 T.S. 엘리엇은, 시에 있어서의 지성의 존중과 시의 감정에서의 해방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시는 지적 활동의 가장 고도로 조직된 형식이다.」

「시는 감정의 방종한 전회(轉廻)가 아니라, 감정에서의 도피다. 시는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성에서의 도피다.」

시의 감정에서의 독립성의 강조와 지성의 존중은 시와 시인과의 분리를 필연적으로 유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T.S. 엘리엇의 의견을 들어보자.

「흥미를 시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시로 향하는 것은 상찬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선악의 어느 것이든 실제의 시의 좀 더 정당한 평가로 인도할 터이니까. 운문(韻文) 속에서 진지한 정서의 표현을 감상하는 사람은 많으나, 기교의 우수성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 시인에게서 즉 개성에서 독립한 시는, 감정에서 도피하여 지성의 품안에 안긴 현대의 시는 어떠한 운명의 길을 밟고 있는가?

예술의 대상은 영원히 인간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의 본성은 오성과 지식 등에 대립한 것으로서의 감정이요, 감정은 그 성질상 부단히 표출을 기구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예술은 자아의 내부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오는 내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란 전 주관의 대표자로서의 감정의 구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정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시는 자아의 내부의 필연적 요구의 표현이기를 그쳤다. 시가 표현이 아닌 곳에 시인이 시를 낳는 진통을 알 의무가 없다. 그는 다만 기술을 학습하여 시를 제작하면 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이에 시인으로서 나지 않은 사람이 시를 쓸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고, 시인이 무엇이고 말하지 아니치 못할 순간이 올 때 그 시인의 말을 통제하고 감정을 구상화하는 한 중개수단이던 기술이 시를 지배하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지배 밑에 현대의 시는 좀 더 수설(豎設)과 장식의 자유를 얻었고, 두뇌를 위하여 새로운 소재를, 신경을 위하여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현대시에서, 우리의 영혼이 근저로부터 진감되기를, 우리의 전 현존재의 새로운 내용이 부여되기를 기대함의 어리

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4

시가 표현이기를 그치고 기술화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시의 의미를 읽을 수가 없다. 이리하여 T.S. 엘리엇은 진지한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기교의 우수성을 감상할 것을, 아베 브레몽은 시는 일종의 음악이요, 그 의미와는 독립한 애매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의 순수성을 또한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시인이 표현의 대상의 성질과 의미를 고려함이 없이 시의 기교와 음악화와 애매한 매력을 유일한 목적으로 함으로써, 그들의 시는 생명을 잃은 「관념의 음악」이나 「감각의 형이상학」이 되고 말았다.

5

그러나 우리는 시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로부터 독립한 기교의 우수성에서나 음악과의 결합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힘을 전달하는 추력 속에서, 열정적으로 체험된 경험을 전달하는 언어의 완전성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괴테가 말한 바와 같이 「생명은 생명에 의하여서만 환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의식」이 없는 시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술적 감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열정적 체험을 전달하는 언어의 완전성, 즉 의식과 형식과의 완전한 일치에 의하여서만 시인은 롱기누스가 말한 저 「황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태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현대시를 괴멸과 불안에서 구출하여, 다시금 우리를 감격시키고 황홀 속으로 인도케 할 수가 있을까? 이에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인과 시와의 관계—그로 인하여 양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시가 시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가 스스로 시를 쓸 때 시는 추락한다. 따라서 시인은 세련된 기술을 사용하여 독자에 대한 책임만을 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완성될 때까지 시에 대한 책무를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가 다시 한 번 시의 영예스러운 왕좌에 오르려면 시는 시인의 내부의 필연적 요구와 열정적 체험의 표현이요, 두뇌와 기술의 제작이기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다.

시가 기술이기를 그만두고 표현이 되려면, 또한 감정이 지성의 폭위(暴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의 하나는 시인의 영탄을 경멸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인은 설계하고 수량하기 전에, 별을 보고 감탄할 줄을, 꽃을 보고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시에서 전연 지성을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성에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정서적 낭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과 비판을 일삼는 지성, 그것은 결코 예술에까지 승화할 수는 없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지성을 다만 감정에 형식을 부여하여 그것을 구상화하는 작용으로서만, 그리고 체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인의 노력으로서만 인정한다. 실러가 「무의식적인 것과 숙고된 것이 융화하여 시를 낳는다」 하였을 때의 「숙고된 것」, 셸링이 「예술은 의식된 능동과 무의식의 능동의 동화에서 생산된다」 하였을 때의 「의식된 능동」으로서만 지성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 생각할 때 주지주의 문학과 지성의 발견은 결코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이를 너무 극단으로 주장함으로써 시의 육체적(肉體的)과 의미상징을 박탈하여 시를 괴멸과 불안으로 인도하였을 뿐이다.

8

우리는 더 나아가, 시를 「지적 활동의 가장 고도로 조직된 형식」으로 봄으로써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시의 비개성화를 배격치 않으면 안 된다. 지성만이 있는 곳에 오직 기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개성은 결코 기술에 따르지 않으며, 개성이 따르지 않는 기술에서 예술의 독창성은 산출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은 본래 개성이다. 그리고 이 개성에 의하여서만 특수적인 미가 창조된다. 특수적이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처음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 특수적인 것이 보편적 가치를 구유할 때 이를 우리는 독창성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개성적일 때만 우리는 진정한 독창성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괴테의 저 우주와 같이 넓은 보편성은 오로지 그의 바다와 같이 깊은 개성에서 오는 것이다. 물론 단지 개성적이지요, 아무런 유형적인 것을 현출하지 못하는 시는 영원적 흥미를 낳을 수는 없다.

이곳에 개성의 심화와 보편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T. S. 엘리엇가 「시인이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좀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에 끊임없이 굴복시키는 일이 왕왕 있다. 예술가의 진보란 자기희생이다. 개성 소멸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 다만 개성 소멸화를 예술의 기술화, 즉 과학의 상태에의 접근이 아니라, 개성의 심화와 확대를 위한 초개성적인 것의 개성 속에서의 섭취와 그 수단으로서만 용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세린쿠트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시인은 자기의 개성을 굴복 시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에의 신성한 고동을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내부에 있는 신성을 포착(捕捉)하기」 때문이다.

9

시인 정지용의 말을 빌어 최후의 결론을 짓자.

「시인은 시전문가이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인생과 철학과 종교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시인은 시를 제작하는 기술자가 되지 말고 내적 체험의 표현자가 되어야 한다. 시인은 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를 낳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원》, 1권 4호, 1935. 8. 1)